

정혜선 지진화산국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에 입사한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나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과학적 원리와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업무를 하고 있다. 전국으로 현장을 오가고, 한 편의 콘텐츠를 위해 며칠씩 고민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순간들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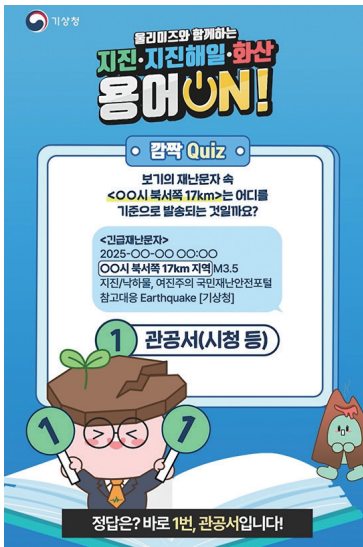
Ep1 홍보는 생각보다 어려웠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인턴을 막 마치고 기상청에 입사한 나는, 홍보 업무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과학관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더 흥미를 느낄지 재미를 중심으로 고민하며 일해왔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리라 여겼다. 하지만 지진을 주제로 한 홍보는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다. 재난을 소재로 다룬다는 것은 흥미나 재미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카드 뉴스, 숏폼부터 토크콘서트, 공익광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진이 무엇인지, 기상청이 지진·지진해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알리고 있지만, 매번 조심스러워진다. 이 일을 하며 '홍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무거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025 지진과학정책 토크콘서트(사진 위)
유튜버 '땀'과 함께한 지진 공익광고 촬영(사진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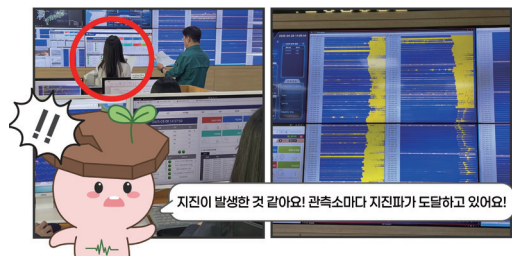


어르신의 질문에서 시작되어 만들어진 쏫폼

Ep2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지기까지

콘텐츠는 '소재'를 찾는 것에서 시작된다. 대학교 시절 사용하던 지질학 전공책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현장에서 받은 질문이 새로운 주제가 되기도 한다. 어느 박람회에서 한 어르신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 "지진 재난문자에 나오는 'OO쪽 OOkm'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건가요?" 순간, 나 역시 입사 전에는 알지 못했던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몰랐던 부분이기엔 국민도 궁금해할 수 있으니, 콘텐츠로 제작하여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 질문은 지진 재난문자 문안의 기준을 설명하는 쏫폼이 되었다.

소재가 정해지면 자료를 모으고 구성안을 만든다. 현장을 찾아가 인터뷰하거나 공간을 취재할 일도 많다. 가끔은 나의 뒷모습이 콘텐츠에 출연하기도 한다.



<탐험 ON 올리미즈'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 편>에 나온 나의 뒷모습

디자인 시안이 나오면 검토가 시작된다. 지진 콘텐츠에서는 이런 피드백이 자주 오간다. “캐릭터가 너무 즐거워 보이니 진지한 표정으로 바꿔주세요.” 이 문장에는 재난 콘텐츠가 가져야 할 태도가 담겨있다. 너무 가볍게 보이지 않도록 단어 하나부터 조사까지 여러 번 확인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콘텐츠를 완성할 때마다, 재난을 홍보하는 일이 절대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된다.



Ep3 전국을 다니며 알게 된 것들

경기도에서 태어난 나는, 입사 전까지 KTX를 탈 일이 거의 없었다. 지금은 대구와 대전, 부산과 정읍 등 여러 지역에서 지진정책을 알리기 위한 부스를 운영하며 돌아다닌 덕에, 서울역 1호선에서 어느 길로 가야 기차를 빨리 탈 수 있는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지하철 첫차를 타고 도착한 서울역은 역시나 분주하다. 기차로 2시간 걸려 전라북도 정읍에 있는 국립전북기상과학관에 도착했다. 기상청은 매년 9~10월에 ‘지진 안전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국의 기상과학관과 연계해 지진홍보부스를 마련했다. 부스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련 상식 퀴즈를 배치하여 정답을 맞히는 공간으로 구성하였다. 기상과학관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퀴즈가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문제들을 곧잘 맞히는 모습을 보며 내가 막연히 떠올리던 초등학생의 수준과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단순히 연령대로만 구분하여 홍보의 난이도를 맞출 필요 없이, 오히려 개개인의 지진에 대한 이해도 수준을 기준으로 한 홍보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와 같이 전국을 다니며 직접 보고 느낀 경험들은, 앞으로의 지진 홍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거름이 되었다.



온라인콘텐츠 제작물들



세계기상의 날 지진홍보부스(대전)



기상기후산업대전 지진홍보부스(부산)



지진안전캠페인 부스(국립대구기상과학관) 지진안전캠페인 부스(국립전북기상과학관)

Ep4 홍보 그 이상의 의미

어떤 일을 하느냐는 질문에 “지진을 홍보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종종 의외라는 표정을 짓는다. 많은 이들이 기상청을 ‘날씨를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기상청은 날씨뿐 아니라 지진·지진해일·화산과 관련된 업무도 담당하며, 지진 발생 시 단 몇 초라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이다. 지진을 알리는 일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나는 지진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지 고민한다.